

## “청주에서 교육희망을 만드는 〈일하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의 교사들이다.  
왼쪽부터 박영길 사무국장, 이현석·연상은·신용만교사



작은 건물 2층에서 서툰게 한글 읽는 소리가 들린다. 아이들 소리는 아닌 듯싶은데 소리가 힘차다. 수업이 끝났는지 낮 열 두시가 되자, 얼굴에 주름잡힌 아주머니들이 젊은 교사들과 인사를 나눈다.

“내가 지난주에 집안에 일이 있어서 몇 번 빠졌으니까 보충해야 허는디.”

허리 굽은 노인은 젊은 교사에게 지난 주 결석 이유를 말하고, 한동안 이런 저런 말을 건넨다. 사소한 물음에도 정성껏 답하는 젊은 교사의 모습이 정겹다.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에는 「사회교육센터-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오전에는 글을 모르는 어머니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오후에는 방과 후 초등학생들에게 공부방을 만들어 주고 있다.

### 청년들이 만든 공부방과 체험학교

오후 두시가 넘어서면 학교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삼삼오오 몰려온다. 입구가 시끄러워지고 너댓평쯤 뒹직한 교실은 아이들이 머리를 맞대고 출석 확인을 하느라 분주해진다. 출석 확인은 그날의 기분 상태로 표시한다. 웃는 얼굴, 찌푸린 얼굴, 화난 얼굴... 출석을 확인하는 동안 키득대는 웃음이 교실을 메운다.

이 곳은 「청주지역 청년모임- 일하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공부방’이다. 99년부터는 대안 학교인 ‘체험학습터 거북이학교’도 함께 이끌

고 있는데, 원래는 청주지역의 대학생들이 청년 단체 활동을 하다, 체계적인 조직을 꾸려 96년부터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을 만들면서 출발했다.

“처음 청년모임을 조직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지역에서 할 일에 대해 고민하게 됐어요. 결론은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공부방이었구요.” <일하는 사람들>의 박영길 사무국장(33)은 자신의 선배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이 단체를 힘겹지만 ‘희망’을 바라보며 운영하고 있다고 말한다.

어머니 한글교실과 공부방은 월 2~3만원의 교재비 정도만 받는다. 단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는 무료다. 다른 시민운동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일하는 사람들>도 경제적인 면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재정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은 차마 꺼내기 어렵다. 후원회 성격의 동아리모임인 산악회 회원들과 실제 교육에 참여하는 교사들, 학생교사들이 모두 후원자라는 것에서 해답의 일부를 훑쳐볼 뿐이다.

### 체험하고 부대끼고 느끼게 하기

공동체교육, 실천교육, 환경교육이 이들이 지향하는 교육의 목표다. ‘교육’을 통해 여러 가지 삶의 방식들을 보여주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같은 목표에 다가가기 위한 방법일 것이다.

예를 들어 장애인 문제를 바라보는 비장애인들의 모습은 어떨까. 아무리 장애인을 평등하게 대하자고 떠들어대도 그들을 바라보는 비장애인들

의 시각은 쉽사리 바뀌지 않는다. 함께 섞어놓고 부대끼고 똑같이 가르친다. 일주일에 한 번씩 지역의 장애아들과 비장애아들과의 통합교육 프로

그램을 실시한다. 장애아들에게는 비장애아들과의 접촉을 늘려 또래 아이들의 삶을 이해하고 사회 적응력을 키워준다. 또한 비장애아들에게는 장애아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함께 살아가는 삶을

체험하게 한다. 물론 처음에야 비장애아들이 장애아와 함께 수업하는 것을 망설이고 거리감을 느낀다. 당연한 일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벽은 체험 없이 깨뜨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걸 알기 때문이다. 청주지역의 장애아들과 비장애아들은 정기적으로 함께 만나 공부하고 체험학습을 통해 서로의 모습을 익힌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은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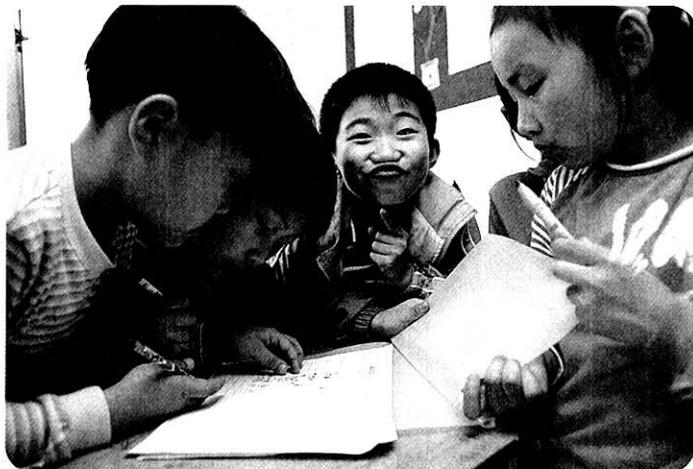
얼마 전, 미군장갑차에 치어 숨진 의정부여중생 사건 때도 그랬다. 전국의 초·중·고 학생들을 비롯해 너나 없이 촛불시위에 참여하고 있을 때도 <일하는 사람들>의 교사들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거리로 나갔다. 처음엔 멧모르고 밤에 초 하나씩 들고 놀러 나가는 줄 알았던 아이들은 그곳에서 하나의 ‘사건’을 통해 미군 장갑차를 알고 효순이, 미선이를 알게 된 것이다. <일하는 사람들>은 큰 틀에서 벗어나지만 않는다. 수업내용이나 방법은 교사, 다시 말해 대학생 교사나 일주일에 한 번 자원 봉사하는 교사 개개인에게 맡긴다. 교사 스스로도 체험하고 부대끼며 함께 배우



는 것이다.

흔히 청주를 교육도시라 한다. 대학이 많다는

길 싫어하죠. 그래도 할 수 없죠. 함께 덩굴게 하고 함께 밥 먹게 하고 굶은일 나누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발견할 수 있다고  
믿고 기다려 주는 것, 이렇게 교육 아닌가요

이유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청주에는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 거창한 교육도시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나친 말일까.

### 체험학교에서 찾는 지역의 '대안학교'

“우리는 그 방법을 자연체험학습터인 ‘거북이 학교’에서 찾을 것이며, 이곳을 지역에서 교육을 모색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답이다.

충북 청원군 미원면의 한 폐교를 임대해 1년 전에 만든 주말체험학습터인 ‘거북이 학교’는 대안교육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이다.

“재밌어요. 공부방처럼 그 부근의 아이들만 오는 게 아니라 청주시내에서 다양한 계층의 아이들이 주말마다 오는데 거기에는 흔히 말하는 상류층 판·검사, 의사가 부모인 아이도 있고 수업료를 받지 않는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도 섞여 있어요. 물론 잘사는 집 부모들은 그렇게 섞어 놓

거북이학교를 담당하는 이창희 교사(35)는 아마도 이런 모습이 다른 대안학교와는 좀 다른 모습일 거라고 덧붙인다.

교과서식 표현을 빌자면 교육법은 대안학교의 개념을 ‘자연친화적이고 공동체적인 삶의 전수를 교육 목표로 학습자 중심의 비정형적 교육과정과 다양한 교수방식을 추구하는 학교’라고 밝히고 있다. 국내의 대안학교는 제도교육과의 관련 정도에 따라 제도교육의 틀 속, 틀 곁, 틀 밖 등으로 나뉘고 운영형태에 따라 정규학교형이나 계절학교형, 방과후 프로그램형 등으로 분류한다.

“저희가 운영하는 이 거북이학교가 대안학교로서 완전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대안학교가 ‘대안’이 되지 않고 또 다른 귀족학교로 기울어지는 일부 대형화된 대안학교의 모습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그런 학교 대부분의 문제는 바로 타 지역 아이들을 받아들이면서 시작됐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국내의 대안학교에 대한 박영길 사무국장의 비판은 조목조목 이어졌다. “지역의 대안학교가 타 지역 아이들을 받아들일 때 면접을 본다면, 학교가 선택하는 아이들은 당연히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이겠죠. 그럼 그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평가는 뭘로 하겠습니까?

결국은 대학진학을 아십니까?” 그는 일부 대안학교의 변형된 모습을 안타까워했다.

결국은 기존의 공교육을 거부하면서 대안학교를 ‘귀족학교’로 만든 것은 우리 교육의 또 다른 ‘교육특권층’을 부양시킨 꼴이 된다는 말이다.

“저희는 공교육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습니

다. 다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북이 학교나 공부방이 공교육의 부족한 면이나 잘못된 부분에 대한 보충 혹은 보완의 성격으로 존재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학교 현장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지역사회에서의 교육공동체가 무엇보다 중요하구요. 이런 작은 교육의 실천으로 청주라는 지역에서 자라고 공부한 아이들이 그냥 이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것을 공부방이나 체험학교가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의 표정은 상기되어 있다.



### 아름다운 청년들이 있다, 청주 그곳에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여 각자가 경험한 인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과정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알게 됐습니다. 상근 교사들이 한글을 가르치던 어머니들과 울고 웃던 얘기, 아이들과 부딪치는 작은 일상에 대해 듣다 결국은 제가 사정(?)해서 일하게 됐습니다”라며 “애써 무언가를 가르치는 게 꼭 교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지내면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 제가 아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 주는 것, 또 무슨 일

이 생겼을 때 스스로 발견할 수 있다고 믿고 기다려주는 것, 이런 게 교육 아닌가요?” 대학생이던

2년 전,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에서 하는 인권교육에 참여하고부터 교사로 일하고 있는 연상은 교사(25)의 말이다.

박영길 사무국장은 이곳에서 나고 자랐다. 자신의 여섯 살 난 딸아იდ도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로 분류돼, 무료로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으니 살기 편하지 않느냐는 말로 청주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사람이다. 푹푹한 웃음에서 사람 좋음이 그대로 드러난다. 대학에서 함께 활동했던 친구들은 모두 대도시로 나갔지만, 이곳 <일하는 사람들>은 스무 살 그때의 희망

으로 청주에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 찾으려 한다. 청주 아이들의 삶의 방식을...

청주를 다녀간 사람들은 진입로를 울창하게 뒤덮은 가로수 길을 기억한다. 그러나 이제는 청주를 아름답게 하는 <일하는 사람들>의 청년들과 아이들을 기억하게 될지 모르겠다.

갑자기 오른 기온으로 가로수 길이 더 푸르다.